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좋은 일자리 만들기 (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)	배포일시	2018. 8. 6.(월) / 총 5매(본문4)	
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	담 당 자	• 과장 안석환, 사무관 나민희, 주무관 정진헌 • ☎ (044) 201-3804, 3792, 3795	
대중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임창호, 주무관 최아진 • ☎ (044) 201-3823, 3828, 3829	
항공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김준성, 주무관 송규상 • ☎ (044) 201-4204, 4189, 4190	
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용욱, 사무관 서지웅 • ☎ (044) 201-3875, 3887	
철도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인, 사무관 박준성, 주무관 김학년 • ☎ (044) 201-4600, 4617, 4607	
보 도 일 시	2018년 8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8. 5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,000여개소… '몰카 안심지대' 만든다

점검 실명제·안심화장실 인증제(클린존 마크) 도입 등 범죄예방 만전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는 **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**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·철도역, 버스터미널 등 **교통시설 내 불법촬영**을 통한 **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**을 마련하였다.

○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"철도역, 휴게소, 공항 등에 **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**이고,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**반드시 근절**하겠다"며 **교통 분야 특별대책**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.

□ 불법촬영(일명 '몰카')을 통한 성범죄는 **꾸준히 증가세**를 보이고 있고, 특히 지하철, 철도, 공항 등 **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**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.

* ('12) 2,400건 → ('13) 4,823건 → ('14) 6,623건 → ('15) 7,623건 → ('16) 5,185건 → ('17) 6,465건

* '14년 전체 6,623건 중 지하철역·버스터미널, 지하철 등 **교통시설** 내 발생은 **1,590건(24%)**

○ 또한, 촬영장치가 위장·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**수법 또한 다양**해지고 있어 **불안감이 증폭**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.

□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·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**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**할 수 있도록 가능한 **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**하여 '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'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《 불법촬영 점검·단속 체계 강화 》

□ 먼저, **교통시설 운영자**에게 **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**하여 **상시 점검**토록 하고,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**휴가철·명절 등**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'**특별 일제 점검**'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화장실, 수유실, 휴게실 등 **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**을 위해 **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**을 **운영**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,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**경찰청·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**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.

* (**도시철도·철도**) '철도역사·차량' 및 '도시철도' 내 화장실, 수유실 등을 **철도운영자**가 **정기·수시 점검토록 의무화**('18.下)하고, 경찰청·철도경찰대 등과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
  - 이동형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**경찰청(지하철경찰대), 철도경찰대의 단속활동**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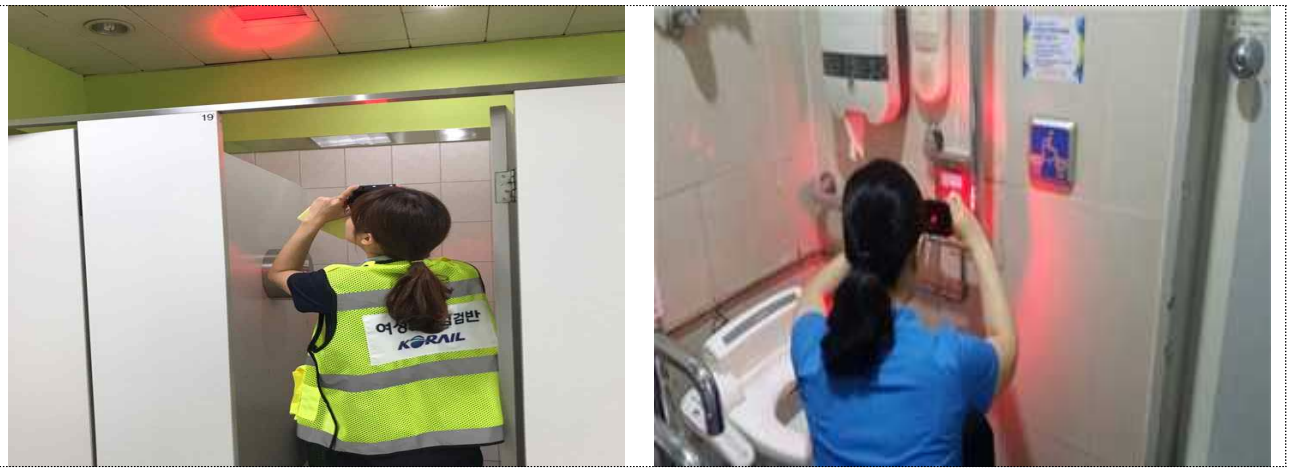
* (**도로**) '고속도로 휴게소'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'몰카 특별 점검반'을 구성 및 운영, '고속도로변 졸음쉼터'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 및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 실시

* (**공항**) 대합실 등 여객공간 단속을 위해 **공항공사 안내·경비인력**을 감시반으로 운영, 이동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**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** 등을 통해 즉시 대응

* (**터미널**) 버스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근무자(경비, 청원경찰 등)가 상시 점검하고,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관서 등 즉시 신고 조치

□ 또한, **불법촬영 점검**의 **실효성**을 높이고, 1일 1회 이상 **상시적 점검**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**개별 시설별**에 대한 **탐지 장비**를 **구비·확충**을 완료할 예정이다.

<철도·도시철도 역사 점검 사진>



《 관리자 책임 강화 》

□ 이와 함께, **교통시설 운영자**의 점검 **이행 실태**를 주기적으로 **점검**하고, 의무 불이행시 **행정처분, 징계**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.

* (**도시철도·철도**) 철도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 시 **행정처분**(최고 **5천만 원 과징금**)
* (**도로**) 휴게소 평가 시 **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**까지도 추진
* (**공항**) 예방대책 미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**경고·징계**
* (**터미널**) 개선명령 불이행 시 **과징금** 부과(최대 600만 원)

《 예방활동 홍보 》

□ 마지막으로,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**점검실명제**를 도입하여 **점검실적을 상시 비치**하고,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**안심 화장실 인증제**(클린존 마크)를 **확대 도입**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.

* **몰카 점검 실명제**는 **즉시 시행**('18.下, 철도, 도로 등)하고,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**안심화장실 인증제 단계적 확대 추진**

** '17.8월부터 화성휴게소에서 안심화장실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, 설문조사 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도가 57%p 감소(74%→17%)

○ 또한, 계단, 에스컬레이터 등 **범죄 다발장소**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,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**안내표지**를 **설치**하고, **안내방송·전광판·배너 경고문** 등을 통해 **상시 계도**함으로써,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"교통시설별 관리·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,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"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나민희 사무관(☎ 044-201-37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교통시설별 '몰카 취약시설' 현황**

1 철도 · 지하철역

구 분	합 계	고속철도	민자철도	도시철도
역 사	1,286 곳	574 곳	38 곳	674 곳
화장실	2,286 개소	1,525 개소	56 개소	705 개소
수유실	448 개소	236 개소	33 개소	179 개소

2 고속도로 휴게소 · 졸음쉼터

(관리: 재정은 도공, 민자는 민자사업자)

구 분	합 계	고속도로 휴게소	졸음쉼터
휴게시설	461곳	220곳 (재정195 + 민자25)	241곳 (재정218 + 민자23)
화 장 실	988 개소	826개소 (재정801개소 + 민자25)	162개소* (재정145개소 + 민자17)
수 유 실	191 개소	191 개소 (재정191 개소 + 민자0)	-

* 화장실이 미설치된 재정구간의 졸음쉼터 49곳에 금년 중 화장실 신설예정

3 공항 터미널

구 분	합 계	인천공항	지역공항
공항(대합실)	15 곳	1 곳	14 곳
화 장 실	733 개소	508 개소	255 개소
휴 게 실	40 개소	12 개소	28 개소

4 버스 터미널

구 분	버스터미널 (대합실)	화장실
전 국	295 곳	350 개소